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사업실패로 인한 손실경험이 재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하경*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과정

김종택**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국 문 요 약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5년 동안('2010~2014년) 연평균 창업은 77만개, 폐업은 69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한해에만 개인사업자로 106만8313명이 창업을 하고 73만9420명이 폐업을 했다. 이는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연구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에 대한 케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실패기업인들에 대한 재기지원사업에 나서고는 있으나 재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재창업지원이 양적인면에서는 활성화됐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이 겪게되는 심리적 특성과 재기를 하고자 할 때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감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의 감정메카니즘을 규명한 모델(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한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사업실패경험(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이 재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감정요인인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는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로 구성했다. 또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재창업의도 사이,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재창업지원정책, 창업자기효능감이 각각 조절작용을 하는지 유의미한 관계성을 알아보려고한다.

연구 대상은 정부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 재도전지원센터등 기관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이들이 재창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 연구가 설정한 가설이 맞을 경우, 시사점으로는 정부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또 창업실패관련 감정메카니즘 규명으로 사업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재창업지원정책의 고도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IBK경제연구소가 2017년 7월에 펴낸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평균 폐업한 기업은 69만개며,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한 OECD 17개 주요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0년부터 재도전지원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다방면에서 재창업지원을 펼치고는 있으나 재창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은 보장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많은 지원책이 양적인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실패기업인들은 가장 도움을 크게 받은 유용한 재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재도전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심리치유’를 49%나 꼽았다. 이같은 수치는 심리적,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패기업인에 대한 감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재창업하겠다는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뿐만아니라 감정적·심리적 케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창업관련 연구는 다양한 창업 영역에서 이뤄져왔다. 특히 창업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돼왔다. 반면 창업의 부정적 측면인 실패를 다루는 연구는

* rosebranch@naver.com

** jtkim@kookmin.ac.kr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업실패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다(이형호, 2016; McGrath, 1999 ;politis & Gabriellsson, 2009) 또한 기존 연구는 성공의 법칙이 무엇이고 사업실패 요인이 무엇인지에만 매달려왔지 재무적 비용외에 심리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사업실패자의 감정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다. 또 사업실패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전화위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류주한,2015). 특히 창업관련 연구에서 창업의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타학문에서 행동의도라 명명하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정적 특성 요인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은 반면 인지심리학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감정적 요인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발표되고 있다(이병관오현정 신경아 고재영, 2008; 조성은 신호창 유선옥 노형신, 2012 ;정대용, 2015)

따라서 본연구는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메카니즘 이해와 케어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창업의 부정적 측면인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사업실패로 인한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경험이 재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사업실패자가 겪게되는 취약한 감정적 요인을 이해하고 재창업의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 감정요인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한다. 또 재창업의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지원정책과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의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감정요인인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는 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을 활용해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로 구성했다(정대용·김재형,2015). 또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와 재창업의도 사이,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재창업지원정책과 창업자기효능감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한다.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이 맞을 경우,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를 통해 감정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사업실패 기업인의 감정적 측면에서 재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또 창업실패관련 감정메카니즘 규명으로 사업실패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재창업지원정책의 고도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선순환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창업실패의 정의

창업실패의 정의는 연구자들의 활용 및 자료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었다. 최근의 국내연구에서, 정대용·김재형(2015)은 창업실패 개념정의를 창업을 통해 조직한 사업이실패하는 일련의 과정(Gartner & Mitchell & Vesper, 1992)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창업실패 (Entrepreneurial

Failure)를 사업실패(Business Faillur)로 간주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대용(2015)이 정의한 것과 같이 창업실패와 사업실패 개념을 같은 의미로 보고자 한다.

국내 사업실패의 개념은 장수덕(2003)이 Watson and Everrett (1996)의 사업실패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정의한 개념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돼왔다(김형호,2016). 장수덕이 주장한 사업실패 개념은 소유구조의 변경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를 포함해 가장포괄적인 개념인 사업의 중단(discontinuance of business)이다. 또 법원이 내리는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내린 정의인 사업의 실패를 공식적 파산(formal bankruptcy)으로 본다. 이는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도, 경매처분, 법정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해석은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업의 처분(disposed of to prevent further losses)이다. 이는 Ulmer & Nelson(1947)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투자금액이 손실되는 것도 사업실패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정의는 Cochran(1981)이 내린 정의다. Cochran(1981)은 기업가가 더 이상 사업의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사업실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품혁신 실패로 인한 수익창출 어려움, 제품판매의 실패등 지속적인 사업운영의 실패(failing to make a go of it)를 의미한다(김형호,2016).

이외에 사업실패에 대한 정의는 Shepherd(2003:318)가 주장한 것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정의를 매출 감소 및 비용상승으로 회사가 부실화되어 새로운 자금을 유치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가 돼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때 실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것처럼, 창업실패 즉 사업실패 개념은 사업의 중단, 공식적 파산, 사업의 처분, 지속적인 사업운영의 실패 등으로 정의 될 수 있다.

2.2.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에 사용된 건강신념 모델을 창업실패관련 연구에 적용한 사람은 ‘정대용’이다. 정대용이 창업관련 연구에 접목시킨 건강신념 모델은 1950년대 미국에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엑스레이 검진프로그램(medical screening programs)에 사람들을 참여

시켜 결핵검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 (Hochbaum, 1958). 이 이론은 사람들의 건강행동(Health behavior)을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로(Glanz & Rimer & Viswanath, 2008) 비만, 고혈압, 에이즈, 흡연, 각종 암 등 국내외 건강행동 실천을 예측하도록 연구되어왔다. 건강신념모델은 사람들의 질병예방행동을 설명하는 2가지 신념을 제시하고 있다(Janz & Becker,1994; Rosenstock, 1974; Ronsenstock & Strecher & Backer, 1994; Sheeran & Abraham, 1996;정대용,2015). 하나는 위협이나 위험한 정도에 대한 개인의 평가 및 지각을 의미하는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방적 행동에 따라 오는 결과의 기대를 의미하는 행동적평가(behavioral evaluation)인 개인의 인식이다. 최근 건강신념모델은 이외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추가했다.

정대용(2015)은 최근 건강신념모델을 창업실패관련 평가 모델로 활용하게 된다. 그는 개인들이 질병예방행동을 시행하는 것을 창업실패를 피하기 위한 개인들이 하는 행동과 같다고 보고 이같은 논리에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위협, 지각된 혜택, 지각된 장애로 감정적 요인인 창업실패 관련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창업실패관련 평가를 통해 감정메카니즘 규명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대용(2016)의 창업실패관련 평가모델을 활용해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모델을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로 재구성했다

2.3. 사업실패경험관련 선행연구

그동안, 사업실패관련 연구는 창업실패 요인(이장우·이성훈,2003;장수덕,2003;장수덕외,2008;정성민 외,2008;하규수 외,2009;신중경·하규수,2013;하규수,2012)을 분석한 연구, 창업실패 과정(Cope et al.,2004;Cope,2011;Huovinen & Tihula, 2008;Politis & Gabriellson,2009;Reru,2005; Ucbasaranetal. ,2009 ;Ucbasaran et al. ,2010;Ucbasaran et al.,2013)연구, 창업실패 경험에 대한 대처 행동(신중철, 2012; Singhetal.,2007; Subramanian & Kumar, 2009)에 대한 연구(백재화,2013), 성향에 대한 연구로 기업가들은 실패의 원인을 내적 요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발견한 개인특성에 대한 연구(Zacharakis Myer & Decastro,1999), 학습, 심리적 비용과 관리를 주제로 실패로 학습하는 것에 슬픔의 역할을 강조, 슬픔 회복법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 연구(Sheherd,2003; 김형호,2016), 또 사회적비용·심리적비용·금융비용에 대한 연구(Cope et al,2004; Coelho & MoClure,2005; Singh, Corner & Pavlovich,2007; Vailant & Lafuente,2007; Dew,Sarasvathy, Read & Wiltbank,2009; Kirkwood, 2009), 학습,태도,행동결과등에 관한 연구(Ucbasaran, Wright, Westhead & Busenitz,2003; Politis & Gabrielson,2009)등이 있다.

또한 사업실패경험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내용은 Lazarus & Folkman(1984)에 의해 제안된 대처전

략(Coping Strategy)이다. 이는 사업실패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을 계획적인 문제해결전략으로 수립하여 사회적지지 획득을 통해 재창업에 성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처전략은 2가지인 문제중심대처와 감정중심대처로 구분된다(백재화, 2014).

2.4. 재창업의도

재창업의도를 설명하기 앞서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의도는 주로 개인적인 특성 혹은 성향, 창업행동에 대한 연구와 창업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최옥희·박종희·김남현,2017).

정대용·김재형(2016)의 연구에서 Gartner & Mitchell & Vesper(1992)는 창업의 정의를 조직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는 일정기간에 걸쳐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진행된다(Bird,1988; Katz & Gartner,1989). 이처럼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과정적 측면의 관점에서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단계라 할 수 있고 창업을 통해 만들어낼 기업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Krueger and Carsrud,1993;오상훈·하규수2013; 정대용·김재형,2016).

Crant(1996)는 창업의도를 예비 창업가가 미래에 창업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때문에 창업의도는 창업관련 전반적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는 필수개념이라는 설명이다(Bird,1988; Katz et al.,1988; Krueger and Carsrud,1993; 정대용·김재형,2016).

Shapero(1982)는 기업가 이벤트(Shapero's Entrepreneurial Event Theory:SEE)모델을 활용한 개인의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Ajzen(1985)은 계획된 행동 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TPB)을 통해 개인의 행동은 계획적이며 인지적 과정에서 의도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하는 설명변수라고 주장했다(정대용·김재형,2016).

그 외에, 창업의 환경적 측면의 연구로는 창업의지 결정이론이 있다. 이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을 내부요인인 개인적 특성과 외부환경요인으로 구분했다(김형호,2016).

2.5. 재창업지원정책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시책이 최근에 시행된 관계로 선행연구는 거의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교육, 창업자금지원제도가 창업의지와 기업성공에 미치는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김형호,2015).

Johnson(1990)은, 창업지원정책을 창업자에게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훈련, 사후관리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Johnson(1990)이 제시한 구체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는 창업자의 잠재적 능력과 특성의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특별한 사업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공간 및 창업자금지원등이 포함된다(Gartner & Vesper, 1994).

박남규, 김명숙, 고종욱(2015)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창업지원정책(교육지원, 자금지원 및 마케팅지원)은 창업가정신에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창업의지에 대해서는 창업가정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했다.

Blanchflower(2004)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R&D자금지원이 창업가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Jeon(2011)은 정부의 벤처기업혁신지원제도가 창업가정신과 기술혁신성과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현재 우리나라 재창업지원제도로는 제도전지원센터,제도전 중소기업 경영자힐링캠프, 제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자금, 재창업기업계약이행보증, 중소기업재창업지원, 재기지원펀드, R&D자금 지원등이 있다.

2.6. 창업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정의되었다(Bandura,1993). 또 Bandura(1997)는 주어진 과업상황에 맞서 그것을 통제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Shane, Locke and Collins는 자기효능감은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역경에 맞서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한 과제에 대한 개인적인 자신감이라고 정의했다.

Boyd & Vozikis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창업에 처음 도입한 사람이다. 창업과 관련하여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이 가진 신념을 창업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개념으로 제안했다.

구지은·전병길(2015)은 높은 자아효능감을 소유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인정, 심리적 성취감과 같은 성공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낮은 창업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실패, 불명예, 스트레스, 패배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Wilson F et al 2007)고 설명했다.

Megee LE 등(2009)의 연구에서도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성과 위협, 어려움등 창업현실을 직면하더라도 창업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를 결정짓고, 동시에 창업의도가 창업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예측해 주는 중요한 설명변수라 하였다(Boyd et al.,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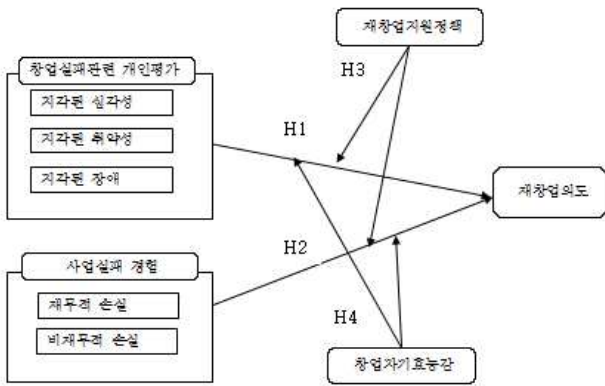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을 활용한 정대용(2015)의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했다. 정대용(2015)이 적용한 건강신념 모델은 개인들이 시행하는 질병예방행동을 창업실패를 피하기 위해 개인들이 하는 일련의 행동과 같다 판단하고 이같은 논리에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혜택, 지각된 장애로 감정적 요인인 창업실패 관련 개인평가모형을 구성했다. 여기에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기반으로 한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을 추가하여 건강신념모델의 확장 모델을 활용했다(Rosenstock & Strecher & Becker,1994; 정대용·김재형,2015). 정대용은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기효능감, 정부지원정책을 각각조절변수로 설정했다는 점이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요인으로 구성된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와 사업실패경험(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이 재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를 통해 감정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사업실패 기업인의 감정적 측면에서 재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 모델 설정은 [그림 1] 연구모형과 같다.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 사업실패경험(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재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독립변수(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 사업실패경험)와 종속변수(재창업의도) 과정에서 창업자기효능감, 재창업지원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했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는 의료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질병에 대한 감정적 요인을 규명한 평가모델인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3개의 변인(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으로 구성하고 가설 H1을 설정하였다.

H 1: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 3개의 변인은 재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지각된 심각성은 재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2 : 지각된 취약성은 재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1-3 : 지각된 장애는 재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사업실패 경험은 재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대용, 1999; Kirkwood, 2009; 하규수, 2010)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업실패경험(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도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알아보기로 가설 H2를 설정했다.H 2: 사업실패경험 중 손실경험은 재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재무적 손실은 재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2 : 비재무적 손실은 재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김형호(2016)는 재창업지원정책의 자금지원은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이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 H3을 설정했다.

H3: 재창업지원정책은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H3-1 : 재창업지원정책은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와 재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H3-2 : 재창업지원정책은 사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H3-3 : 재창업지원정책은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chen, Green & Crick, 1998; Cox et al.,2002;Boyd Vozikis, 1994)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실패 개인평가,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 사이에 창업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알아보하고자한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선행연구 중 창업교육과 창업의도간에 창업효능감을 조절 효과로 분석한(양준환,2016), 창업지원정책 과 창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로 설정한(박남규,2014)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정의하여 가설 H4를 설정했다.

H4: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H4-1 :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실패관련 개인평가(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장애와 재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H4-2 : 창업자기효능감은 사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H4-3 : 창업자기효능감은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측정에 앞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성개념을 구체화하고 각 변수의 구성을 고려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의 개발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기존의 설문을 참고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보완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사용된 각 연구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표 4-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변수에 따른 조작적 정의와 측정 문항으로 정리하였다

[표 4-1]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문항

| 변수 |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 |
|----------------|---|--|
| 창업 실패 관련 개인 평가 | 창업실패를 피하기 위해 개인들이 하는 일련의 행동 | |
| | 지각된 심각성(5) 지각된 취약성(5) 지각된 장애(5) | Rosenstock et al.,(1994) 정대용 · 김재형(2015) Backer & Maiman(1980) |
| | 사업의 중단, 파산, 처분, 지속적 운영의 실패 경험 | |
| 사업실패 경험 | 재무적손실(5) 비재무적손실(4) | 송경숙(2015) 정대용(1999) 하규수(2009) |
| | 사업실패 경험자가 미래창업 할 가능성 | |
| 재창업 의도 | 재창업의도(5) | Ajzen(1982) Shapero & Stokoll(1982) |
| | 정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 | |
| 정부의 재창업지원 정책 | 지각된 심각성(5) 지각된 취약성(5) 지각된 장애(5) 재창업의도(7) | Rosenstock et al.,(1994) 정대용 · 김재형(2015) Backer & Maiman(1980) |
| | 창업에 대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한 신념 | |
| | 창업자기효능감(5) | Boy & vozisky(1994) Cox L et al.,(2002) 정대용 · 김재형(2015)서 |

4.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감정적 측면에 재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연구의 한계는 또 재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검증에 있다. 원래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의 실패당시와 정부 재창업지원을 받고 난 후의 재창업의도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야 더욱더 정확한 정부재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이 검증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실패 기업인들의 정보 확보등이 현실적인 난관이 있다. 따라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과거의 실패한 당시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회상을 통해 설문하고 재창업지원을 받은 다음의 심리감정적 변화와 재창업의도의 변화를 재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으로 측정했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구지은전병길(2015), 창업자기효능감, 일가치 및 창업지원서비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21(6), 1-13.기영(1999), 외식업의 창업유형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산업학회, *Tourism Research*, 13권, 69-84.
김형호·윤현덕(2015),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 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벤처창업연구*, 10(6), 235-252.
김형호(2016), *사업실패경험이 재창업의지와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배영임(2014), 재창업기업의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

연구, 9(3),13-22
박남규(2014),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백재희(2013), *재창업가의 창업실패와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소비자학 박사학위 논문
송경숙(2015),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393-407.
신종철(2012), *창업가의 특성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십과 스트레스의 기대 효과,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학위 논문.
신중경·하규수(2013), 창업실패 요인 분류 및 실패 패턴 분석, *디지털정책연구*, 11(5), 257-265.
이장우·이성훈(2003),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2), 49-82.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2-146.
장수덕(2003),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차이, *벤처경영연구*, 6(2), 101-125.
장수덕(2011),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차이:기업수준에서의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4(3), 49-73.
정대용·김재형(2016), 창업실패관련 지각된 위험이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경영교육학회*, 제31권 제4호 2016년 8월, 571-590
조유리·고동환(2015),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창업가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46, 미래창조부 과학부, 6-104
최옥희·박중희·김남현 (2017).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성향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1(1), 35-50.
하규수(2012), 사업에 대한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19(5), 59-74.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rocesses*, 50, 179-211.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Chen, C. C., Green, P. G. and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59-316

- Cohen(1994). The Knowledge Filter and Entrepreneurship in Endogenous.
- Cox, L. W., Mueller, S. L. and Moss, S. E.(2002).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2), 229-245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Gartner, W. B., Mitchell, T. R. and Vesper, K. H.(1989) A Taxonomy of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4(3), 169-186.
- Jun-hwan Yang(2016). Self-efficacy as Moderator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9(1), 17-357